LG Display 신년사

LG디스플레이 정철동 사장 신년사<u>프레스센터</u> / 2024. 01. 02 /

- 정철동 사장, 2일 신년사 통해 "사업의 본질은 고객가치 창출과 수익성 확보"라며, "고객에게 페인포인트 해소와 만족, 나아가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며, 품질과 원가, 그리고 개발·생산에서 핵심역량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
- "고객 신뢰에 기반해 영속 가능한 회사가 되겠다는 목표로, 임직원 모두 한 마음으로 세가지 핵심 과제 실행에 몰입해 줄 것" 당부
- (1)원가혁신과 사업목표 달성을 통해 재무건전성 확보 및 턴어라운드
- (2)고객 중심의 사고와 일하는 방식으로 LG디스플레이만의 차별적 고객가치 창출
- ③스피크업(Speak-up)을 시작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로의 변화 가속화
- ■정 사장,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지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원팀 정신으로 무장한 다면 분명 우리 손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는 2024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마무리

LG디스플레이 정철동 사장은 2일 국내외 임직원에게 전한 신년사에서 "사업의 본질에 집중해 새로운 승부에 도전하자"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취임 이래 지난 한 달은 회사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며, "각 사업·부문별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고, 국내외 사업장의 개발·생산 현장을 둘러보았다"는 말로 신년사를 시작했다.

정 사장은 "2024년은 남다른 각오로 온 힘을 다해 '사업의 본질에 집중하는 해'로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본질은 고객가치 창출과 수익성 확보"라며, "이를 위해서 고객에게 페인포인트 해소와 만족, 나아가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며, 품질, 원가, 그리고 개발·생산에서 핵심역량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고객 신뢰에 기반해 영속 가능한 회사가 되겠다는 목표로, 올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세 가지 핵심 과제의 실행에 몰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먼저 "원가혁신과 사업목표 달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턴어라운드를 앞당기자"며, "모든 사업에서 경쟁 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수율·생산성·재료비 등에서고강도의 원가혁신을 추진해 사업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별로는 ▲올해 예정된 스마트폰과 태블릿 OLED 신모델의 적기 개발과 양산 ▲대형 사업의 고객 기반 확대 및 새로운 판로 개척, 공장 가동률 제고 ▲중형 LCD 사업에서는 차별화기술과 품질을 토대로 전략고객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손익구조 개선을 위한 원가혁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과제로 "고객 중심의 사고와 일하는 방식으로 LG디스플레이만의 차별적 고객 가치를 만들어 가자"며, "대규모 장치산업과 B2B 사업의 특성상 고객 관계는 우리의 가장

LG Display 신년사 1

중요한 자산이자 경쟁력으로, 기존 고객과는 약속을 잘 지켜 신뢰를 강화하고, 멀어진 고객 관계는 재건하며, 신규 고객은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고객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프로세스에 기반해 업무를 수행하고, 디지털 전환(DX)과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가속화하는 등 철저히 고객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과 일하는 방식을 정착시킬 것을 주문했다.

정 사장은 마지막으로 "스피크업(Speak-up)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로의 변화를 가속화하자"며, "활력 넘치고 팀워크가 발휘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임직원 누구나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당당히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 주체로 참여하는 스피크업을 활성화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이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라는 토대 위에서 가능하기에 전사 차원에서 직급과 직책 대신 '님' 호칭을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지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원팀 정신으로 무장한다면 분명 우리 손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는 2024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승부 에 도전하는 2024년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정 사장의 신년사는 글로벌 구성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버전으로 도 전달됐다.

LG Display 신년사 2